



## 닭코레라(Fowl Cholera)

원 송 대  
 <한국 카아걸 기술지도부장>

닭 코레라는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닭병으로 까다로운 질병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전에 발병보고가 있었으나 요즈음은 발생보고가 없다. 좋은 약이 나와서 닭 코레라를 제압하고 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 서구에서 발생되어 골치를 앓고 있다.

병원체는 파스투레라 멀토시다(Pasteurella Multocida)라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급만성 전염병이다.

### 외부증상(External Symptom)

**급성형** : 외부증상 없이 계사바닥에 갑자기 죽은 닭이 많이 생기는 것이 첫 증상이다. 폐사율은 50% 정도가 되며 폐사속도도 매우 빠른 것이 이 병이다. 푸른색의 설사를 하는 외에는 외부증상이 보이지 않는다.

**만성형** : 만성형은 폐사가 그리 많지 않다.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외부증상은 육수가 빨강색이 되고 만지면 열이 난다.

이 육수가 나중에 단단하게 변하는 것은 농양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만성형에서 이 세균이 귀안에 까지 파급되어 머리를 비틀고 걸음 걸이가 불완전하게 되는 수도 있다.

### 내부증상(Internal Symptom)

간 표면에 작은 출혈점이 생기고 간혹 심장과 장에 출혈점이 생기는 것이 닭 코레라의 전형적인 병리소견이다.

물론 간은 종장되고 흰줄 무늬 같은 선이 생

기는데 이것은 피사점이 연결된 것이다. 장내 벽에 출혈로 엉키고 또는 혈어서 피저성 장염 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리고 산란계의 복강은 난황이 터져 노란계 물들어 있기도 한다. C.R.D의 호흡기 증상처럼 기낭이 혼탁하고 심장이 노란막으로 덮히는 수도 있다.

### 감염 방법(Transmission)

닭 코레라는 전파속도가 대단히 빠르다. 오염된 사료, 물의 매개로 호흡기나 식도를 통해 감염된다. 이 병에 잘 걸리는 주령은 12~18주령 사이다. 흔히 평사와 육의 사육장에서 잘 발병된다. 또한 건강계가 감염계를 풀때 피를 통해서 전염되는 수도 있다. 다행히 종란을 통해서 난계대 전염이 안되는 것이 다행이다. 병의 발병은 감염후 4~9일후 발병된다.

### 치료 방법(Treatment Method)

- 설파 퀴녹사린(Sulfa Quinoxaline)  
 사료에 0.1% 첨가하여 2~3일 먹인후 0.08%로 줄여 며칠 더 먹인다.
- 설파 디메독신(Sulfadimethoxine)  
 설파 퀴녹사린의 농도와 기일을 먹이되 반듯이 음수 투여한다.
- 설멜(Sulmet)  
 닭 코레라를 치료하는데 좋은 약이다. 투약 시지대로 먹인다.